

전북 바둑영재 활약 '두각'

조남철·이창호 국수 이을 재목 실력 '쑥쑥' 나현·이동훈 기사 정상급 활동 잇단 우승 김영도·김민규 군 2년새 프로에 연속 입단

최근 이세돌과 알파고 간 바둑 대결로 전국에 바둑 신드롬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바둑 영재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조남철 국수와 이창호 국수를 이어 현대바둑 산실의 명예를 드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전주 강종화 바둑도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김영도(만 14세) 군에 이어 지난해에는 김민규(만 14세) 군이 잇따라 프로기사로 입단했다.

김영도 군과 김민규 군은 각각 1회와 3회에 열린 지역영재입단대회를 통해 입단했다.

또 지난해 5월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는 윤예성(14세, 백산중 2

년) 군이 중고등부에서 우승하며 바둑 전북의 위상을 높였다.

이 대회에서 박경준(효자초 5년) 군은 초등 최강부에서 아깝게 반집패 했지만 3위를 차지하는 실력을 보였다.

전국 유치부도 소영빈(2005년), 강유민(2007년), 윤예성(2008년), 박경준(2011년), 김동균(2012년) 군 등이 각각 출전한 5차례의 대회를 모두 우승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밖에도 전북이 낳은 초특급 신예인 나현(21세), 이동훈(18세) 프로는 한국바둑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

나 프로는 물가정보매(2014년), 천원전(2014년)을 우승하여 2관왕

에 올랐다. 이동훈 프로는 지난해 최강 박정환 9단을 꺾고 바둑왕전을 우승하고, 올해 4월에는 랭킹 2위 기전인 GS칼텍스배를 우승했다.

또한 지난 21일 롯데백화점배 어린이 바둑대축제에서 권효진 군이 우승, 3위는 박경준 군이 차지해 지방최초로 전국대회에서 1,3위를 차지하는 기업을 토했다.

올해에도 오는 28일부터 강원도에서 열리는 제45회 전국소년체전에는 모두 7명의 선수(초등부:남자- 권효진, 박경준, 여자-김민지, 이서경, 중등부:남자-강유민, 윤예성, 강창효)이 출전해 전북의 명예를 드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강종화(50) 원장은 "조남철 이창호 국수의 뒤를 이어 후학 양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특히 알파고의 등장 이후 어린 꿈나무들이 관심이 증폭되면서 유망주를 찾아 잘 뒷바라지 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시는 25일 아중호반도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중호수 주변 활성화를 위한 '아중호반도시 다올마당'을 개최하고, 아중호수 생태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추진사업을 점검했다.

“생명이 숨 쉬는 아중호수를”

전주시, 다올마당서 호반도시 조성사업 논의

전주시가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침체일로에 있는 아중호수 주변을 호반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인근지역 주민 등과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는 25일 아중호반도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중호수 주변 활성화를 위한 '아중호반도시 다올마당'을 열어 아중호수 생태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아중호수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최근 아중호수를 중심으로 한 호반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새로운 생태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아중호수를 단순한

저수지의 개념을 뛰어 인근지역까지 포함한 아중호반도시로 발전시키자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아중호수 주변을 되살리기 위해 오는 2018년 말까지 총 50억원을 들여 아중호수에 소통광장과 가족 숲, 화장실, 주차장, 야외무대 등을 갖춘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전개한다.

또한 시는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아중호수 주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오는 12월 까지 8개월 동안 사업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 나가기로 했다.

다올마당 위원들은 아중호수 내 새로운 볼거리 아이템 등을 함께 발굴하고, 잘 조성된 산책로(데크)의 유지 관리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아

중호수와 수변 주변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호수주변 주민과 자생단체, 마을공동체 등과 함께 환경감시 활동 및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중호반도시 다올마당은 지난해 '아중호수'를 부르기 쉽고 친근감이 있는 '아중호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아중호수 명칭변경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다올마당 위원들은 분기별 정기모임과 수시모임 등을 통해 아중호수 활성화 마스터플랜에 대한 방안제시와 유지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시 사회경제적지원단 관계자는 "아중호반도시 프로젝트 조성을 위한 비전제시와 사업발굴은 물론, 아중호수 유지관리를 위한 활동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성공적인 호반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보건소, 어르신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25일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방문보건센터 등록대상자 중 경증우울대상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및 웃음치료를 진행했다.

전주시보건소 방문보건센터에 등록된 의료취약계층 대상자는 총 5459명으로, 그 중 65세 이상 대상자는 4202명으로 전체 대상자중 7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증 우울은 12.1%, 경증우울은 45.0%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소는 의료취약계층의 스트레스 감소 및 우울증 감소를 위해 매년 3회 이상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산나개 노래 부르고, 오랜만에 많이 웃어서 스트레스 풀린 것 같다"며 만족했다.

김경숙 소장은 "대상자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시민의 건강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무면허 교통사고 40대 집중

전주지법 형사1부(이재은 부장판사)는 25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6시55분께 전주시 금암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A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용주 기자

여성 유인 절도 30대 검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유인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안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중국 여성에게 "바다를 보러 가자"고 속여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예비 등)로 최모(30)씨를 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께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부안군 주산면 간이휴게소에서 동승한 중국 여성 장모(30·여)씨가 소지품을 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차량을 운전해 달아나 현금과 신용카드를 든 지갑과 휴대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진수 기자

전주시, '유네스코 국제 평생학습도시' 인증

회원 가입증서 받아

전주시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 국제적인 평생학습 도시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졌다.

전주시는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유네스코 평생학습원으로부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GNLC)' 회원 가입증서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출범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는 유네스코의 지속

가능 개발목표 중 SDG4(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SDG11(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성취를 위해 현재 전세계적으로 회원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유네스코는 지난 2013년 중국 베이징에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출범을 위한 베이징 선언문을 채택했다.

/김영재 기자

법원, 개인파산제 악용 채무자 심사강화

주거지·근무지 불시 방문

법원이 개인파산제도를 악용한 사례에 대응해 개인 파산 채무자의 주거지와 근무지 등을 불시에 방문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 불황 여파로 개인파산 신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허위로 개인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는데 따른 법원의 대책이다.

실례로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A씨는 지난해 3월 허위로 파산 면책을 시도하다가 법원에 적발됐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A씨는 월 90만원의 급여를 받고 한정식 식당에서 근무하며 식당 2층에서 가족들과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 빚을 갚을 능력

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산관재인이 손님을 가장해 한정식 식당을 불시 방문한 결과, 식당 2층에는 채무자 가족이 거주할 공간이나 가재도구 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계산대에 비치된 식당 명함에는 채무자의 아내 명함이 찍혀 있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식당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판단하고 면책 불허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8월에도 파산관재인의 불시 현장 방문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조명 회사를 폐업한 뒤 다시 자신의 부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동종 업체를 설립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개인파산 채무자 B씨가 면책 불허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개인파산제도의 남

용을 막기 위해 내달부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주거지에 대한 거짓 진술이 의심될 경우 불시 현장 방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파산선고를 받는 채무자는 불시 현장방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파산관재인은 현장 방문 필요성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법원에 현장방문 필요성 등을 소명하고 실태를 파악한 뒤 현장방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과거 면책을 받았던 채무자가 면책 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 다시 면책을 신청할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재산변동내역 등을 상세히 조사하는 등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용주 기자

전주, 한눈에 반하다

국립전주박물관 유네스코 음식장의도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